

창조성의 사회적 환경: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에 대한 역사측정학 연구

김 명 철[†]

민 경 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역사측정학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분야의 영역 특성을 밝히고 각 분야의 창조적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환경 요소를 탐구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두 영역의 경력 표지점을 비교하여 한국 현대 소설 영역이 한국 현대 회화 영역에 비해 새로운 생각과 연합의 빠른 산출과 빠른 산물화가 더 두드러지는 분야임을 밝혀내고 두 영역의 역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발견한 두 영역의 차이를 바탕으로 출생 순서, 부모 여임, 어린 시절의 외상적 경험 등 발달기의 사회적 요인과 경쟁, 멘토, 다분야 활동 등 성인기 환경이 창조자의 생애 명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 시절의 외상적 경험의 영역 일반적인 긍정적 효과와 다분야 활동의 영역 특정적 긍정적 효과, 멘토 수의 영역 특정적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논의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고 그 함의를 논하였다.

주요어 : 창조성, 창조성 발달, 창조성의 환경, 창조성의 영역 특성, 역사측정학

[†] 교신저자: 김명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M312호
E-mail: kei0@snu.ac.kr

서론

창조성의 환경 요인 연구와 역사측정학

창조성은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유전과 환경, 천성과 양육, 성격과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성은현, Kaufman, 2012; Amabile, 1996/2010; Dacey & Lennon, 1998; Sternberg, 2007). 창조성의 심리학적 연구는 처음에 유전과 천성 및 성격을 강조하였으나 이후 환경, 양육, 상황 요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창조자의 발달기에 작용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창조 작업에 작용하는 환경 요인의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김명철, 민경환, 2012).

우리나라에서도 창조성과 사회적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그 기초적 기제에 대한 연구로서 내적·외적 동기와 보상의 관계를 이론적(장재윤, 구자숙, 1998), 실증적(박영석, 정수정, 2000)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맥락이 더 구체화된 경우로는 특히 조직 구성원의 창조성을 다루는 연구가 큰 진보를 이루며 주관적으로 인식된 창조적 조직 풍토와 상사의 지원(은영신, 유태용, 서학삼, 2012), 사회적 지지와 도전적 직무 및 충분한 자원 등의 환경 요소(박영석, 박신영, 1999; 장재윤, 박영석, 2000), 코칭 리더십(하원식, 탁진국, 2012)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발달 환경으로는 모친의 내적통제성(성은현, 2004), 가정환경이 제공하는 심리적 지지 및 지적 자극(성은현, Kaufman, 2012), 소득 수준과 거주 환경(성은현, 김누리, 2010)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조 환경 연구는 아직 축적된 지식이 양이 부족할뿐더러 이론적·방법론적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먼저 창조성의 사회적 준거를 중시하는 현대 창조성 연구의 흐름이 더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김명철, 민경환, 2012). 현대의 창조성 연구자들은 각 분

야의 전문가나 평론가 등 적절한 평가자들이 인식 가능한 산물에 대해 내리는 새로움과 적절성의 평가를 창조성의 중요한 준거로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자기 보고 방식의 측정치나 특정한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치보다는 구체적 산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반영된 측정치가 더 중시된다(Amabile, 1982; Plucker, Beghetto, & Dow, 2004).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료들에 의한 평가(은영신 등, 2012)와 산물에 대한 평가(성은현, 김누리, 2010)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성과 사회적 환경의 관계는 문화, 시대, 영역 등 맥락에 좌우된다(Gardner, 1993; Sawyer, 2006). 따라서 창조 환경 연구의 이론화를 위해서는 문화와 시대의 영향이 반영되는 다양하고 특징적인 창조 영역의 연구를 통해 일반론과 특수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Kaufman 2009; Simonton, 1999).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창조 영역은 그 역사적·문화적 특징에 의해 서구의 동일한 영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창조성 연구에는 더 큰 맥락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준거가 명확한 창조성 지표를 다룸과 동시에 큰 맥락을 다룰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는 합의 평가 방법, 질적 연구 방법, 그리고 역사측정학 방법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합의 평가 방법(Amabile, 1982)은 참여자들이 특정한 창조적 과제를 수행하며 산출한 산물을 해당 영역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평가하도록 하여 사회적 준거가 명확한 창조성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을 뜻한다(김영록, 이순목, 2004). 합의 평가 방법은 연구자가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과제를 통제할 수 있고 과제 수행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정의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의 환경을 조작,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는 실험 연구에 적합하다(Hennessey, 2003). 두 번째, 질적 방법은 과거나 현재의 유명 창조자를 대상으로 사례분석, 생애사적 접근, 현상학적 분석 등을 실시하

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유명한, 즉 사회적 평가를 통해 창조적이라는 평가를 획득한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창조성의 사회적 준거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연구 대상이 위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영역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창조자와 환경의 관계를 풍부하게 기술하고 비교할 수 있다(Gardner, 1993; Gardner, 1997/1999).

준거와 맥락을 중시하는 창조 환경 연구의 세 번째 방법이자 본 논문이 한국 창조성 연구에 도입하려 시도한 방법은 역사측정학 방법이다. 큰 범주의 역사측정학(historiometry)이란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과 관련된 범칙의 검증을 목표로 하여 역사적 개인이나 사건에 대한 문헌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의 모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Simonton, 1998b, p.269). 창조성의 역사측정학 연구는 문헌 자료를 통해 창조자 개인 및 그들의 산물에 대한 중요도 및 순위 평가, 지면 할당량, 전집 수록 여부, 다수의 문헌에서 중복 인용되는 여부, 전집 및 공연 횟수, 논문에 인용되는 횟수 등을 통해 적합한 평가자의 사회적 평가가 반영된 창조적 명성 지표를 얻는다. 이때 창조적 명성 지표는 추출 방식 간에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Simonton, 1999) 평가자가 속한 시대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Simonton, 1984b). 역사측정학을 활용하는 연구자는 이 창조적 명성 지표를 활용해 창조자의 경력 궤도를 분석하고 각 창조 영역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Simonton, 1983, 1991a, 2007), 역시 문헌 자료를 통해 얻은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창조적 명성과 관련되는 사회와 문화의 조건(Simonton, 1975b), 창조적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요인(Simonton, 1976a, 1999; Sulloway, 1996/2008)과 사회적 자원 및 경쟁(Simonton, 1984a, 1992b), 인종과 성별(Simonton, 1992a, 1998a), 창조 집단(Simonton, 2004)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역사측정학 방법은 가용한 문헌 자료만 확보한다면 연구 대상 영역과 그 문화적·시대적 배경에 거의 제한이 없고, 다양한 대상에 대해 양적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적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여러 창조 영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역사측정학 방법을 도입하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린 분야에 속하는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에 접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창조성의 역사측정학 연구가 도출한 여러 발견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에 적용한 연구 가설을 수립하도록 한다.

창조성의 역사측정학 연구: 영역 특성과 사회적 요인

창조성의 역사측정학 연구는 다양한 영역의 창조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력 표지점(career landmarks), 특히 경력 정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각 영역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변수와 창조적 명성의 관계에 대한 영역 일반론과 영역 특정론을 전개하는 기틀을 마련한다(Dennis, 1966; Simonton, 1997). 경력 표지점이란 창조자가 최초의 산물을 생산하거나 가장 중요한 기여를 산출하거나 최후의 기여를 산출하는 나이를 가리킨다. 이 중 경력 정점이란 어떤 창조자가 문헌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거나 가장 많이 인용되고 수록되는 산물을 생산한 나이를 뜻한다. 중요한 사실은 각 영역별로 창조자들의 경력 정점의 평균을 구했을 때 이 평균에 뚜렷한 영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인은 소설가보다 경력 정점이 빠르게 도래하며 학술 분야의 저술가는 소설가보다 느리게 정점에 이른다(Simonton, 1975a). 과학 영역 내에서도 수학과 물리학은 지구과학과 약학 등에 비해 경력 정점이 더 빠르다(Simonton, 1991a).

Campbell(1960), Simonton(1997, 1999) 등은 진화론적 관점을 통해 영역 간 경력 표지점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창조라는 현상은 맹목적 변이 산출과 선택적 보유라는 진화론적

법칙을 따르는 인간 활동이다. 이에 따라 창조자 개인 및 그가 속한 사회가 어느 정도의 변이 맹목성(blindness)을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맹목성의 수준이 설정되는 단위가 바로 창조 영역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예술 영역에서는 창조자와 사회가 모두 의외의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얼핏 관계없어 보이는 지식의 새로운 조합에 큰 가치를 둔다(즉 창조자와 사회는 더 맹목적인 변이를 선택하고 보유한다). 반면 철학, 심리학 등의 영역은 변이의 맹목성보다는 변이의 목적성(sightedness)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영역으로 창조자와 사회가 기존의 체계와 지식의 기반 위에서 새로움의 타당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보유하는 영역이다. 변이의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의 창조자는 새로운 생각과 연합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이를 끊임없이 산물로 종합해 내기 때문에 더 이른 나이에 경력 정점에 다다르고 더 빠르게 소진될 것이다. 변이의 목적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는 새로움의 산출 보다는 적절성의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자가 중요한 업적을 산출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도움을 받아 더 많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창조성의 역사측정학 연구는 이 맹목성-목적성의 스펙트럼 위에서 창조 환경의 영역 일반론과 영역 특수론을 전개한다. 먼저 거시 역사 및 문화 요인의 효과를 관찰한 결과 창조자에게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발생시키는 토양인 정치적 분권¹⁾ 및 시민적 불안정성²⁾, 이데올로기 다양성 등은 영역에 관계없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창조 활동의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전쟁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roll, Benjamin, Fohl, Fried, Hildreth & Schaefer,

- 1) 특정 시대 특정 문화권 내에 존재한 공식 정치체의 수를 뜻한다.
- 2) 특정 시대 특정 문화권 내에서 발생한 혁명이나 봉기, 시민운동의 수를 뜻한다.

1971; Simonton, 1975b, 1976b). 반면 동일한 거시 사회적 요인이라 할지라도 시민적 불안정성 등은 예술적 창조성에 대해 명확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학적 창조성은 더 안정적인 사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imonton, 1999).

개인 수준의 발달 환경에 있어서도 변이의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는 비관습적이고 불안정한 환경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변이 목적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는 안정적이고 풍족한 환경이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출생 순서, 부모 여임, 발달기 외상적 경험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Sulloway (1996/2008)는 출생 순서가 후순위인 것과 진화론 등 과학 이데올로기 혁명, 뉴턴 역학이나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혁신, 최면술 등 논쟁적 주제, 우생학 등 보수적 이론의 지지 여부 간에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후순위 출생자들의 진화론 지지율이 첫째들보다 9.7배가 높았는데 특히 80대의 후순위 출생자들도 25세의 첫째들만큼이나 진화론에 개방적이었다. 동생들은 왜 급진적 아이디어나 새로운 분야에 열광하는 것일까? Campbell(1960) 등이 창조 행위 자체를 진화론적 시각에서 바라보았듯이 Sulloway (1996/2008)는 형제 관계라는 사회적 환경을 진화론적 시각에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동생들이 혁신에 뛰어 들고 새로운 분야에 열광하는 것은 한정된 부모의 투자 중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형제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동생들이 다각화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출생 순서의 효과는 전체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 개인이 맹목적 변이와 다각화를 선택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는 첫째인 경우가 많고 위대한 예술가는 동생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Bliss, 1970; Feist, 1993; Roe, 1953).

부모 여임과 외상적 경험의 효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Berry(1981)는

1900년부터 1977년에 걸친 노벨상 수상자의 발달적 환경을 조사하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16.7 퍼센트가 16세에 이를 때까지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여윈 경험을 가진 반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중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2 퍼센트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또한 예술 영역의 창조자는 발달기에 부모의 경제적 몰락이나 지독한 가난, 심각한 가정불화 등 외상적 경험을 하는 경향이 크다(Berry, 1981, Kaufman, 2000~2001). 즉 어린 시절 부모 투자의 큰 감소나 자원의 궁핍을 경험한 사람은 변이와 다각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고 변이의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에서 큰 명성을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성인기의 사회적 환경으로는 경쟁, 사회적 자원, 다분야 활동 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시대의 창조자들은 서로에게 경쟁자로 작용하여 누군가가 사회적 명성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는다(Simonton, 1977, 1984a). 반면 유사 영역에 종사하는 스승, 멘토와 친구, 가족, 제자 등의 사회적 자원은 일반적으로 창조적 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때 과학자는 사회적 자원의 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비해 예술가는 자신의 멘토, 동료, 제자, 가족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Simonton, 1984a, 1992b, 2009). 이는 변이의 맹목성이 중요해질수록 더 다양한 사회적 자극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다분야 활동이란 창조자가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과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즉 화가가 조각을 하거나 소설가가 시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견 창조자 개인의 선택으로 보이는 다분야 활동이 그의 창조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이유는 다분야 활동을 통해 창조자 내에서 새로운 생각의 산출이나 새로운 연합의 개발이 나타나기 때문이다(Sawyer, 2006; Simonton, 2009). 이에 따라 변이의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 다분야 활동의 뚜렷한 효과가 관찰된 바 있다(Simonton, 1976a).

한국 현대 소설 및 회화의 영역 맥락과 연구 가설

이제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의 역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 맥락 속에서 두 영역의 특징과 두 영역 내에서의 발달적·사회적 요인의 효과에 대한 가설을 수립해보도록 하자.

한국 현대 소설은 1917년 <대한매일신보>에 이광수의 「무정」이 연재되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윤식, 김우종 외 34인, 2005).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해서는 그 시작이 1945년 해방 이후라는 견해가 있지만 미술사 문헌들은 1911년 전통회화 교육기관인 서화미술원이 창립되고 1915년 교회동에 의해 서양화가 처음으로 소개되어 동·서양화가 서로의 영향 속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191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한국 현대 미술사를 서술한다(오광수, 2010). 따라서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는 대략 1915년 내외에 출발하여 우리나라 20세기 초·중반의 격동기를 통해 형성, 정착, 발전된 창조 영역이다.

먼저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는 크게 보아 예술 영역에 속하고, 예술 영역은 일반적으로 학술 영역에 비해 변이의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imonton, 2009). 따라서 두 영역의 경력 정점은 변이의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진 서구의 시, 소설, 음악 등의 분야와 유사하게 38~43세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Simonton, 1975a, 1991b). 또한 후순위 출생, 부모 여윈, 발달기의 외상적 경험, 사회적 자원, 다분야 활동 등이 창조자의 명성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영역 일반론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 1: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분야의 경력 정점은 38~43세에 형성될 것이다.

가설 2: 변이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발달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변수들이 두 영역의 창조적 명성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반면 두 영역의 역사적 맥락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한국 현대 소설 영역은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한국 현대 회화 영역보다 더 컸던 것이다. 한국 현대 소설은 새로운 영역이 도입되어 발전한 경우이며 특히 초기의 개척자들은 그들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다는 자각이 있었다.³⁾ 또한 외국의 문학에서 형식적·내용적 전범을 발견한다 해도 우리말이라는 도구로 이를 구현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과제여서 일부 작가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우리말 실력 부족을 자각하기도 하였다(권영민, 2002; 장용학, 2002). 반면 한국 현대 회화 미술의 경우 특히 20세기 초의 동양화는 18세기의 근대 회화와 맥이 닿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전통적 바탕을 가지고 있었다(오광수, 2010). 서양화의 경우 새로운 형식과 방법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미술가는 회화라는 국제적 언어를 통해 전통과 호흡할 수 있었고 국외의 미술 중심지에서 활약하며 세계 미술의 최첨단에 설 수도 있었다(고암미술연구소, 2000; 서종택, 2000). 이러한 사실에서 아래의 두 가지 영역 특수론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 3: 한국 현대 소설 영역 창조자의 전성기는 회화 분야의 창조자보다 더 빠를 것이다.

가설 4: 변이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발달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변수들은 한국 현대 소설 영역의 창조적 명성과 더 명확한 관계를 보일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먼저 연구 1을 통해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의 경력 표지점을 규명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두 영역의 특징을 밝히려 한다. 이어지는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밝혀낸 두 영역의 특징에 따라 발달기

3) 이광수의 경우 “전차 속에서 나는 문학자가 될까, 된다 하면 어찌나 될런가, 조선에는 아직 문예라는 것이 없는데, 일본 문단에서 기를 들고 나설까?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다(장석주, 2013).

및 성인기의 사회적 환경 요인들이 각 영역에서의 창조적 명성에 대해 가설과 같은 관계를 보이지 확인해볼 것이다.

연구 1

방법

절차

역사측정학에 활용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적절한 사회적 평가 과정에 의해 구성되는 분야별 개관서와 통사적 연구서, 분야별 대규모 선집, 백과사전과 인명사전 등이다. 작가의 경력 궤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각 작품에 대한 창조적 명성 지표를 얻는 필요가 있다. 이때 자료를 얻는 각 문헌의 서술 양식에 따라 단순히 특정 산물이 다양한 자료에서 중복하여 다루어지는지의 여부를 지표화하거나 문헌 자료에 명시된 작품의 중요도에 대한 순위 또는 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문헌이 특정 산물에 할당된 지면의 양을 지표로 삼을 수 있다(Simonton, 1976c).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 소설에 대해 김윤식, 김우종 외 34인(2005)과 권영민(2002)의 자료를, 한국 현대 회화에 대해 오광수(2010)와 한국미술평론가협회(2009)의 자료를 활용하고 두 영역에 공통적으로 백과사전(두산동아 편집부, 2002)을 활용하였다. 구체적 지표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통사적 개설서가 개별 작품에 할당된 서술량의 평균을 파악한 후 각 개설서별로 단순 언급된 작품에 1점, 평균 이하의 분량이 서술된 작품에 2점, 평균 이상의 분량이 할당된 작품에 3점을 부여하여 합산하였다(예를 들어 한 개설서에서 평균 이하의 지면이 할당되고 다른 개설서에서 단순 언급된 작품의 점수는 3점이다). 다음 단계로 이들 작품을 작가별로 종합하여 191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세 개의 작품이 포착된 소설가

118명과 미술가 73명을 발견해낸 뒤 이들 작가를 백과사전에서 검색하였다. 백과사전 작가별 항목에서 단순 언급된 작품에는 1점을 부여하고 작품별 별도 항목이 할당된 작품에 대해서는 서술량이 평균 이하인 작품에 대해 2점, 평균 이상인 작품에 대해 3점을 부여하여 개설서를 통해 얻은 점수에 합산하였다(위에서 예를 든 작품이 백과사전에서 별도 항목이 배정되었고 그 서술량이 평균 이하일 때 해당 작품의 최종 점수는 5점이 된다). 지표의 종합이 끝난 후 특정 창조자가 적어도 하나의 문헌에 언급되는 최초 산물을 생산한 나이를 그의 경력 시점으로, 명성 점수가 가장 높은 산물을 산출한 나이를 그의 경력 정점으로, 문헌에 언급되는 마지막 산물을 산출한 나이를 그의 경력 종점으로 변수화하였다. 회화 영역의 미술가 중 2명은 두 작품 이상의 동점작이 최고의 작품인 경우로 이들의 경력 정점은 규명하지 못하였다. 소설가 중 아직 경력 종점을 규정할 수 없는 작가는 17명이었고 회화가의 경우는 3명이었다.

영역 간 비교 분석 방법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경력 표지점과 표지점 간의 기간에 대해 두 영역 간의 차이를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현대 소설 및 회화 영역 창조자의 경력 궤도와 비교하기 위해 Simonton(1975a)의 3개 영역 저술가 경력 정점 자

료와 Simonton(1991b)의 클래식 작곡가 경력 표지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1의 모든 *t* 검증에는 .05의 알파 수준이 채택되었다.

결 과

한국 현대 소설 및 회화 영역 창조자의 경력 궤도 특징과 그 차이는 표 1과 같다. 먼저 한국 현대 회화 영역 창조자들의 경력 정점 평균 연령은 가설 1에서 상정하였던 38~43세 범위 내인 41.54(*SD* = 12.73)세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현대 소설 영역의 경력 정점은 가설 1에서 설정했던 범위에서 벗어나 34.69(*SD* = 7.95)세로 나타난다. 두 영역의 각 표지점 및 표지점 간 기간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 현대 소설은 한국 현대 회화에 비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를 받는 작품을 처음 산출하는 나이가 빠르고 첫 산출 후 정점에 이르는 기간 또한 빠르게 정점에서 마지막 기여 산출에 이르는 기간도 더 짧다.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현대 소설의 경력 정점은 Simonton(1975a, 1991b)의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시, 소설, 정보적 산문, 음악의 경력 정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가장 빠른 나이에 도래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시 분야는 다른 어떤 창조 영역에 비해서도 변이의 맹목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진 영역이

표 1.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 창조자의 경력 표지점 비교

경력 궤도	소설		회화		영역간 비교		
	n	M(SD)	n	M(SD)	<i>t</i>	<i>df</i>	<i>p</i>
시점	118	25.91(53)	73	30.22(1.16)	-3.78	189	<i>p</i> < .001
정점	118	34.69(7.95)	71	41.54(12.73)	-4.55	187	<i>p</i> < .001
종점	101	50.36(13.68)	70	63.93(12.07)	-6.68	169	<i>p</i> < .001
시점~정점	118	8.77(7.13)	71	11.61(10.84)	-2.17	187	.031
정점~종점	101	15.63(13.31)	70	22.27(15.00)	-3.02	167	.003

표 2. 한국 현대 소설 및 회화와 서구 각 영역의 경력 표지점

	소설	회화	시 ^a	소설 ^a	정보적 산문 ^a	클래식 음악 ^b	서구 클래식 음악과 한국 현대 소설 영역의 비교		
							<i>t</i>	<i>df</i>	<i>p</i>
시점	25.9	30.2				30.7	7.15	236	<i>p</i> < .001
정점	34.6	41.5	38.5	42.6	50.3	40.7	3.72	236	<i>p</i> < .001
종점	50.3	63.9				50.5	0.80	219	<i>ns</i>

주. ^aSimonton(1975a)의 결과. ^bSimonton(1991b)의 결과

지만(Kaufman, 2000~2001; Simonton, 1975a) 한국 현대 소설의 경력 정점은 서구의 시 영역보다 4 년가량 빠르다. 또한 기존 연구의 자료 중 본 연구의 자료와 *t* 검증이 가능했던 서구 클래식 음악의 경우 한국 현대 소설 영역과 그 경력 시점 및 정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Simonton(1997, 1999) 등에 의거했을 때 한국 현대 소설 분야는 한국 현대 회화 분야와 서구 클래식 음악에 비해 변이의 맹목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맹목적 변이의 산출과 보유가 더 활발하게 발생하는 분야이다. 반면 한국 현대 회화는 한국 현대 소설보다는 서구 클래식 음악 작곡에 더 유사한 분야로 합목적적 변이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조에 주력하고 학술적 탐구의 성격이 가미된 분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도출한 가설 3의 예언과 잘 부합된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밝혀낸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의 특징을 바탕으로 출생 순서, 부모 여윈, 외상적 경험 등 발달기 요인과 경쟁, 사회적 자원, 다분야 활동 등 성인기 요인이 두 영역의 창조적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창조자들의 전기 자료를 통

해 발달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요인 변수를 추출하였고 이 요인들이 창조자의 생애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시에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발달기에 작용하는 요인과 성인기에 작용하는 요인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방법

절차

연구 2의 종속변수는 각 창조자의 창조적 생애 명성이다. 이 점수는 연구 1에서 구현한 작품별 창조적 명성 점수를 각 작가에 대해 합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문헌 자료를 통해 3점짜리 작품 다섯 편이 발견된 작가에게는 15점의 생애 명성 점수가 부과된다. 전체 연구 대상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소설가 118명과 미술가 73명이다.

연구 2의 독립변수로 활용되는 발달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했다.

- 1) 평전
- 2) 작가 연구서 및 연구 논문
- 3) 문학 및 미술 잡지의 작가 인터뷰, 대담, 작가 소개 자료
- 4) 소설가의 각 작품과 미술가의 전시 도록 및 화집에 실린 작가의 글 또는 인터뷰 및 대담

자료

5) 각 문헌의 작가 연표

6) 백과사전(두산동아 편집부, 2002), 장석주(2013) 등의 문헌

자료 취합 결과 총 94명의 소설가에 대해 가족 관계나 어린 시절의 경험, 활동 사항 등이 충분히 서술된 전기 자료를 확보하였고 24명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이 불충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빠져 있는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미술가의 경우 63명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10명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연구 2의 분석에 투입된 각 지표는 다음과 같다.

출생 순서

첫째일 경우 1, 둘째일 경우 2로 입력하는 등 창조자의 출생 순서를 그대로 변수화 하였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와 남자아이의 경우 전체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자신의 순위로 누나들밖에 없었다면 맏이의 혜택을 받고 맏이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Sulloway(2008) 등의 방식과 달리 남성 작가들에게는 순위 여자형제를 제외한 출생 순서와 단순 출생 순서 모두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분석 과정에서 두 지표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순위 여자형제를 제외한 출생 순서의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부모 여임

Berry(1981)가 정의했던 것과 같이 만 17세 이전에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모두를 여임 여부이다. 부모 여임의 경험이 없는 경우 0, 부모 여임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더미 코딩하였다.

발달기의 외상적 경험

만 17세 이전에 부모 여임 외에 가족 간의 큰 불화를 겪거나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거나 가까이서 친지의 사망을 경험하는 등의 체험을 한

여부이다. 외상적 경험이 없는 창조자는 0, 외상적 경험이 있는 창조자는 1로 더미 코딩하였다.

멘토

Simonton(1984a) 등의 방식을 바탕으로 각종 전기 자료에서 작가에게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언급되는 사회적 자원들을 지표화하고자 했다. 작가의 사회적 자원 중 이들의 전기 자료에서 자주 그리고 명확하게 언급되어 변수화가 가능한 유일한 변수는 이들의 스승과 마스터, 즉 멘토의 수였다. 전기 자료에 언급된 각 창조자의 멘토 수를 그대로 입력하였다.

전성기 경쟁

전성기 경쟁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Simonton(1975b) 등의 방식을 따랐다. 먼저 본 연구에서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10년대 별로 창조적 산물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 작가의 수를 세었다. 소설가의 경우 191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4, 24, 42, 37, 45, 59, 60, 60명의 작가가 포착되었고 회화가는 2, 11, 18, 23, 43, 45, 48, 34명의 작가가 포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작가의 경력 정점을 포함하는 10년 단위 기간 동안 창조적 산물을 산출한 다른 작가의 수를 그 작가의 전성기 경쟁의 수로 삼았다. 예를 들어 소설가의 전성기가 1956년이라면 해당 작가의 전성기 경쟁은 45명이다.

다분야 활동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산출을 남긴 경우를 뜻한다. Simonton(1976a)의 제안에 따라 문학, 미술 등 두 가지 이상의 상위 영역에서 활동했을 경우 활동한 영역 한 가지마다 2점을 부과하고 문학 내의 희곡, 평론이나 미술 내의 조각, 퍼포먼스 등 하위 영역에서 활동했을 경우는 하위 영역 한 가지마다 1점을 부과하였다.

출생년도(통제변수)

Simonton(1976a) 등에서는 창조자의 출생년도

가 그의 생애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옛날 사람이 유명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두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오랜 과거에 활약했던 작가들의 명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에 작가 출생년도의 표준화 점수를 구해 통제변수로 삼았다.

창조적 장수(통제변수)

각 창조자의 창조적 장수 또한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창조적 장수란 경력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기간으로 한 창조자가 전문 문헌에 언급되는 수준의 작품을 얼마나 오랜 기간 산출했는가 하는 지표이다. 창조적 장수는 그 자체로 “어떤 창조자가 오랜 기간 높은 평가를 받는 산물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구성할 수 있는 변수이지만 창조적 명성과 사회적 환경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볼 때에는 결정적인 통제변수가 된다. 어떤 창조자의 생애 명성 점수는 그의 산물의 명성을 모두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작품을 산출하는 것은 생애 명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Simonton, 1977, 1979).

분석 방법

연구 2는 통제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창조자의 생애 명성에 대한 발달기의 사회적 요인과 성인기 요인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위계적 회귀분석이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판단된다. 즉 1단계 회귀모형에 통제변수인 출생년도와 창조적 장수를 투입하여 통제된 후 2단계 모형에는 출생 순서, 부모 여임, 외상적 경험 등 창조자의 발달기에 작용하는 요인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3단계 모형에 경쟁, 멘토, 다분야 활동 등 성인기의 변수를 투입하여 창조적 장수와 발달기 요인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성인기의 사회적 요인이 갖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소설과 회화 각 영역

별로 실시하여 영역 일반론 가설인 가설 2와 영역 특수론 가설인 가설 4를 모두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2의 모든 위계적 회귀 분석에는 .05의 알파 수준이 채택되었다.

결 과

한국 현대 소설 및 회화 영역 각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정리하였다. 먼저 창조적 장수는 소설 영역의 1, 2, 3단계 모형과 회화 영역의 1, 2단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며 이는 창조적 장수가 창조적 생애 명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1단계 모형에 투입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반면 작가의 출생년도는 안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소설 영역에 대한 위계적 회귀 모형은 1, 2, 3단계의 R^2 증분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한국 현대 소설 작가의 생애 명성에 대해 발달기의 사회적 요인들은 창조적 장수와 출생년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며 성인기 요인은 다시 통제변수와 발달기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유한 설명력의 증분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회화 영역에 대한 위계적 회귀 모형은 1, 2단계 모형의 R^2 증분이 유의미했으나 3단계 모형의 R^2 증분은 그렇지 않았다. 즉 한국 현대 회화 작가의 생애 명성에 대해 발달기의 사회적 요인은 창조적 장수와 출생년도를 통제한 후에도 설명력을 가지지만 성인기의 사회적 요인은 창조적 장수 및 출생년도와 발달기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다면 고유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발달기의 사회적 요인 중 출생 순서는 두 영역 모두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20세기의 작가들에게는 Sulloway (2008)의 형제간 경쟁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조자들의 전기 자료를 살펴보면 Sulloway가 말하는 후순위

표 3. 한국 현대 소설가의 생애 명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

예측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484	.145		-.100	.237		-.280	.244			
출생 년도	-.228	.127	-.204	-.292	.123	-.262*	-.230	.229	-.206		
창조적 장수	.493	.153	.367**	.442	.150	.328**	.432	.152	.322**		
출생 순서				-.055	.127	-.047	-.127	.121	-.110		
부모 여임				.216	.282	.088	.140	.270	.057		
외상적 경험				.758	.295	.302*	.918	.281	.366**		
전성기 경쟁							-.049	.250	-.041		
멘토 수							-.456	.166	-.295**		
다분야 활동							.225	.113	.215*		
			$R^2 = .164 \Delta R^2 = .164^{**}$			$R^2 = .223 \Delta R^2 = .117^*$			$R^2 = .319 \Delta R^2 = .119^*$		

주. 분산팽창요인의 확인 결과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 $p < .01$

표 4. 한국 현대 미술가의 생애 명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

예측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317	.136		-.406	.137		-.427	.178			
출생 년도	-.202	.139	-.212	-.253	.131	-.265	-.248	.174	-.259		
창조적 장수	.282	.102	.402**	.259	.096	.370*	.303	.102	.433**		
출생 순서				-.073	.106	-.093	-.115	.110	-.146		
부모 여임				-.325	.130	-.290*	-.377	.258	-.220		
외상적 경험				.723	.256	.404**	.756	.288	.422*		
전성기 경쟁							-.140	.119	-.200		
멘토 수							-.116	.094	-.209		
다분야 활동							.019	.189	.017		
			$R^2 = .234 \Delta R^2 = .234^{**}$			$R^2 = .393 \Delta R^2 = .159^*$			$R^2 = .457 \Delta R^2 = .064$		

주. 분산팽창요인의 확인 결과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 $p < .01$

출생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도 발견되지만(예: 강인숙, 1994) 가업 대물림의 압박을 뿌리치고 예술 활동에 뛰어들었던 인물들 또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예: 오창준, 2008). 이와 함께 부모 여림의 효과 역시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가설 2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모 여림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는커녕 소설 영역에서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고 회화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beta = -0.370$, $t = -2.04$, $p = 0.049$.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세기 초·중반에는 우리나라 사회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형제간, 가정 간의 격차보다는 시대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일 수 있다. 특히 창조 작업을 위해 일정한 자원이 꼭 필요한 미술 영역에서 부모 여림이 가져온 부정적 효과는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이 설명은 추후 국가 수준의 경제력 또한 변수화 하여 다양한 국가의 창조자들을 비교했을 때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따라서 우리나라 20세기 초·중반에는 변이 맹목성이 중시되는 영역에 투신하게끔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두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는 발달기 외상적 경험이 그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전기 자료를 살펴보면 장남의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발달기의 빠져린 체험이 이들을 예술 활동의 길로 이끄는 경우들이 발견된다(예: 윤홍길, 1990; 정재립, 2013). 또한 외상적 경험은 작품의 주제 및 소재로 활용되는 등 창조 활동의 밑바탕이 되기도 하였다(예: 이동하, 1996; 하인두, 1983). 따라서 출생 순서와 부모 여림, 외상적 경험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잠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형 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대에는 당대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창조자의 길로 나서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두 영역에 대한 3단계 모형을 살펴보면 한국 현대 소설 영역의 독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 특정론 가설인 가설 4는 변이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한국 현대 소설 영역에서 멘토 수의 긍정적 효과가 명확할 것이며 다분야 활동의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예언한다. 다분야 활동의 경우 소설 영역에 대해서만 긍정적 효과가 관찰됨으로써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다. $\beta = 0.229$, $t = 2.11$, $p = 0.039$. 반면 경쟁의 효과는 두 영역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지표화한 경쟁 변수가 창조적 산물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저변, 즉 평단이나 창조적 산물의 소비 규모, 창조자들이 활동하며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직업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소설 영역의 독특성은 또한 멘토 수의 효과에서 나타난다. 멘토 수의 효과는 가설 4가 예언하는 바와 부합되게 소설 영역에서만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 방향은 가설에서 상정한 방향과 반대이다. $\beta = -0.291$, $t = -2.69$, $p = 0.007$.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 정립된 영역과 사회적 자원의 선형적 관계가 사실은 비선형 관계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기존 역사측정학 연구는 영역별로 다양한 시대의 창조자들을 모두 모아서 분석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Simonton, 1984a, 1992b).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현대 소설에 주목한 것과 같이 특정 분야의 도입기에 주목하여 분석이 실시된 바는 없다. 즉 한국 현대 소설은 새롭게 창시되어 발전된 분야로 영역의 변이 맹목성 요구가 매우 높고 산물의 적절성 요구에 비해 새로움의 요구가 매우 높은 극단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누군가에게 배워서 적절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더 적은 멘토를 두고 새로움의 산출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때는 멘토보다 오히려 수평적 관계인 친구나 라이벌의 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패러다임의 정착이 이루어진 예술 영역의 경우 창조자는 더 많은 멘토를 통해 적절함을 갖춘 새로움을 생산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이의 목적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는 소수의 사회적 자원을 통해 엄밀히 분화된 지식과 평가를 획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멘토 수의 중요성은 다시 줄어들 것이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창조성과 사회적 환경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역사측정학 연구의 영역 일반론과 영역 특정론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의 역사측정학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Campbell(1960), Simonton(1997, 1999) 등의 진화론적 시각을 도입하여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들의 진화론적 시각에 따르면 창조 행위 또한 맹목적 변이와 선택적 보유의 원칙을 따르는 진화론적 현상이며 여러 창조 영역은 얼마나 맹목적인 변이를 산출하고 보유할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변이의 맹목성이 두드러질수록 그 영역의 창조자는 새로운 생각을 더 빨리 산출해야 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더 빠르게 산물로 종합해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경력 표지점, 특히 경력 정점이 더 빠르게 찾아오는 경향을 보인다(Simonton, 1999). 이에 본 연구자들은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의 역사적 맥락에 의거하여 이들 영역이 변이 맹목성을 중시하는 예술 영역으로서의 공통점을 보임과 함께 새로운 영역이 소개되는 수준의 급진적 변화에 속하는 한국 현대 소설 영역은 그 변이 맹목성의 요구가 더 클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의 경력 표지점 분석을 실시하여 두 영역의 경력 정점이 일반적으로 예술 영역에 대해 예견되는 38~43세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과 한국 현대 소설 영역의 경력 정점은 한국 현대 회화 및 서구 클래식 음악 작곡 영역의 정점보다 더 빨리 도래함을 확인함으로써 영역 특징에 대한 두 가

설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밝혀진 두 영역의 특성과 차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의 창조적 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역사측정학 연구에 의하면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는 예술 영역에 속하고 변이의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이므로 후순위 출생(Sulloway, 1996/2008), 부모 여임(Berry, 1981), 외상적 경험(Kaufman, 2000~2001), 사회적 자원(Simonton, 1992b), 다분야 활동(Simonton, 1976a)의 일반적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고 동시대의 경쟁은 일반적인 부정적 효과가 기대되었다(Simonton, 1984a). 또한 연구 1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 현대 소설은 한국 현대 회화에 비해 변이의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이므로 각 요인의 효과는 한국 현대 소설 영역에서 더욱 명확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 현대 소설과 회화 영역 각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발달기 외상적 경험의 영역 일반적인 긍정적 효과와 다분야 활동의 현대 소설 영역에 대한 영역 특징적인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어 기존 연구의 결과와 부합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가설이 대부분 들어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후순위 출생자들은 부모 투자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다각화 전략을 선택하여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가능한 영역을 지지하고 해당 영역에서 높은 성취를 거둘 것으로 예견되지만(Sulloway, 1996/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일한 논리로 변이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의 성취를 촉진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부모 여임의 효과는 한국 현대 회화 영역에서 오히려 예언과 반대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창조자의 멘토는 많으면 많을수록 변이 맹목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의 성취를 촉진할 것으로 예견되지만(Simonton, 1992b) 변이의 맹목성이 더 두드러지는 영역인 한국 현대 소설 영역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일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경쟁의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오히려 창조성 연구에서 맥락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각 창조 영역의 독특성을 말해줌과 동시에 역사측정학 연구가 맥락을 더 명확히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볼 수도 있다. 출생 순서와 부모 여임에서 나타난 의외의 결과는 식민지의 곤궁함과 전쟁의 참상을 고려하고 발달기 외상적 경험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해석이 가능했다. 또한 한국 현대 소설 영역에서 멘토의 수가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관찰한 것은 어떠한 영역이 새롭게 도입되어 발전하는 시점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선형적 관계에 숨겨져 있던 비선형적 양상을 발견한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자 수 요인의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각 영역의 사회적 저변을 변수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력 표지점 분석을 통해 영역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이 유용하고 타당하며 역사측정학 연구가 우리나라의 창조성을 조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역사측정학 방법의 더 발전된 활용 가능성을 드러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창조성을 연구할 때 서구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이론적 틀에 더해 우리나라의 독특한 맥락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에 따라 역사측정학의 기존 변수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더 깊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다변화되어 그 각각의 상호작용이 기술될 필요가 있다. 맥락이 깊게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의 산출과 상호작용의 기술은 또한 역사측정학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여러 창조 영역은 이론적 가치가 풍부한 비밀들을 간직한 채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통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기를, 그리고 역사측정학이 현재 진행형의 방법론으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인숙 (1994). 김동인: 작가의 생애와 문학.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고암미술연구소 (2000). 고암 이응노, 삶과 예술. 서울: 열과알.
- 권영민 (2002).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 김명철, 민경환 (2012). 창조성의 사회심리학적 연구: 개념, 방법, 흐름과 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51-72.
- 김영록, 이순목 (2004). 한국판 창의적 산물 평가 도구의 개발 및 구조 확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7, 305-327.
- 김윤식, 김우중 외 34인 (2005).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현대문학.
- 두산동아 편집부 (2002). 두피디아 [On-Line]. <http://www.doopedia.co.kr>
- 박영석, 박신연 (1999). 작업환경과 작업동기 및 문제해결 방식이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85-105.
- 박영석, 정수정 (2000). 금전적 보상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37-49.
- 서종택 (2000) 변시지. 파주: 열화당.
- 성은현 (2004)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자녀의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79-93.
- 성은현, 김누리 (2010). 소득과 거주지역이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 67-84.
- 성은현, Kaufman, J. C. (2012). 창의적 가정환경 질문지 개발 및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 107-124.
- 오광수 (2010). 한국현대미술사. 파주: 열화당.
- 오창준 (2008). 최영립 & 무나카타 시코. 서울: 컬처북스.
- 윤홍길 (1990). 제3세대 한국문학: 윤홍길. 서울: 삼성출판사.
- 은영신, 유태용, 서학삼 (2012). 주도적 성격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 학습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 조직풍토, 상사지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 607-632.
- 이동하 (1996). 김동리: 가장 한국적인 작가.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장석주 (2013). 나는 문학이다. 파주: BOOK21.
- 장용학 (2002). 요한 시집 외. 서울: 책세상.
- 장재윤, 구자숙 (1998). 보상이 내재적 동기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개관과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 39-77.
- 장재윤, 박영석 (2000). 창의적 작업 환경 측정용 KEYS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3, 61-90.
- 정재림 (2013). 최인훈. 서울: 글누림.
- 하원식, 탁진국 (2012). 코칭리더십이 맥락수행 및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미덕과 학습목표지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 195-213.
- 하인두 (1983). 지금, 이 순간에. 서울: 우암출판사.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2009). 한국현대미술가 100인. 서울: 사문난적.
- Amabile, T. M. (1982).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 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997-1013.
- Amabile, T. M. (2010). *창조의 조건* [Creativity in context]. (고빛샘 역). 파주: 21세기북스. (원전은 1996에 출판).
- Berry, C. (1981). The Nobel scientists and the origins of scientific achievemen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2, 381-391.
- Bliss, W. D. (1970). Birth order of creative writer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26, 200-202.
- Campbell, D. T. (1960). Blind variation and selective retention in creative thought as in other knowledge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67, 380-400.
- Dacey, J. S., & Lennon, K. H. (1998). *Understanding creativity: The interplay of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San Francisco: Jossey-Bass.
- Dennis, W. (1966). Creative productivity between the ages of 20 and 80 years. *Journal of Gerontology*, 21, 1-8.
- Feist, G. J. (1993). A structural model of scientific eminence. *Psychological Science*, 4, 366-371.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9). 비범성의 발견 [Extraordinary minds]. (문용린 역). 서울: 해냄. (원전은 1997에 출판).
- Hennessey, B. A. (2003). Is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really social? Moving beyond a focus on the individual. In P. B. Paulus and B. A. Nijstad (Eds.), *Group creativity: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ufman, J. C. (2000~2001). Genius, lunatics and poets: Mental illness in prize-winning authors.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20, 305-314.
- Kaufman, J. C. (2009). *Creativity 101*. New York: Springer.
- Naroll, R., Benjamin, E. C., Fohl, F. K., Fried, M. J., Hildreth, R. E., & Schaefer, J. M. (1971). Creativity: A cross-historical pilot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 181-188.
- Plucker, J. A., Behgetto, R. A., & Dow, G. T. (2004). Why isn't creativity more important to educational psychologists? Potential, pitfalls, and future directions in creativity research.

- Educational Psychologist*, 39, 83-96.
- Roe, A. (1953). *The Making of a Scientist*. NY: Dodd, Mead.
- Sawyer, R. K. (2006). *Explaining creativity: The science of human inno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ton, D. K. (1975a). Age and literary creativity: A cross-cultural and transhistorical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6, 259-277.
- Simonton, D. K. (1975b). Sociocultural context of individual creativity: A trans-historical time-serie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19-1133.
- Simonton, D. K. (1976a). Biographical determinants of achieved eminence: A multivariate approach to the cox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18-226.
- Simonton, D. K. (1976b). Ideological diversity and creativity: A re-evaluation of a hypothesi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 203-207.
- Simonton, D. K. (1976c). Philosophical eminence, beliefs, and zeitgeist: An individual-genera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630-640.
- Simonton, D. K. (1977). Eminence, creativity, and geographic marginality: A recursiv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805-816.
- Simonton, D. K. (1979). Multiple discovery and invention: Zeitgeist, genius, or ch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603-1616.
- Simonton, D. K. (1983). Creative productivity and age: A mathematical model based on a two-step cognitive process. *Developmental Review*, 3, 97-111.
- Simonton, D. K. (1984a). Artistic creativ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and within gen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273-1286.
- Simonton, D. K. (1984b). Scientific eminenc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 measurement assessment. *Scientometrics*, 6, 169-182.
- Simonton, D. K. (1991a). Career landmarks in science: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terdisciplinary contrast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19-130.
- Simonton, D. K. (1991b). Emergence and realization of genius: The lives and works of 120 classical compos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29-840.
- Simonton, D. K. (1992a). Gender and genius in japan: Feminine eminence in masculine culture. *Sex Roles*, 27, 101-119.
- Simonton, D. K. (1992b). The social context of career success and course for 2,026 scientists and invent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452-463.
- Simonton, D. K. (1997). Creative productivity: A predictive and explanatory model of career trajectories and landmarks. *Psychological Review*, 104, 66-89.
- Simonton, D. K. (1998a). Achieved eminence in minority and majority cultures: Convergence versus divergence in the assessments of 294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804-817.
- Simonton, D. K. (1998b). Historiometric methods in social psycholog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9, 267-293.
- Simonton, D. K. (1999). Creativity as blind variation and selective retention: Is the creative process darwinian? *Psychological Inquiry*, 10, 309-328.
- Simonton, D. K. (2004). Group artistic creativity: Creative cluster and cinematic success in 1,327 feature fil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1494-1520.
- Simonton, D. K. (2007). Cinema composers: Career trajectories for creative productivity in film

- music.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1, 160-169.
- Simonton, D. K. (2009). *Genius 101*. New York: Springer.
- Sternberg, R. J. (2007). A systems model of leadership: WICS. *American Psychologist*, 62, 34-42.
- Sulloway, F. J. (2008). 타고난 반항아 [Born to rebel]. (정병선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원전은 1996에 출판).
- 1차원고접수 : 2013. 09. 16.
수정원고접수 : 2013. 11. 16.
최종게재결정 : 2013. 11. 19.

Social Environment of Creativity: Historiometric Study on the Domains of Korean Modern Painting and Novel Writing

Myung-Chol Kim

Kyung-Hwan 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Using historiometric method, this articl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creative domains of Korean modern novel writing and modern painting, and explored the socio-developmental conditions that yielded creative outputs in each domain. In study 1, the career landmarks of those two domains were compared and it was discovered that Korean modern novel writing required faster ideation than painting and also its ideation-output ratio was higher than painting. We explained this result in the historical contexts of the two domains. Based on these domain characteristics, in study 2 we tested the effects of social factors in developmental period such as birth order, parental loss and traumatic experience, and the effects of factors in active period such as competition, mentors and versatility to the creators' lifetime eminence. There were domain-general positive effect of traumatic experience in developmental period, domain-specific effect of versatility, and domain-specific negative effect of number of mentors.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creativity, creative development, creative environment, domain specificity of creativity, historiometry